

가톨릭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과정이 종교성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천주교 광주대교구와 전주교구*의 경우 -

조발그니

천주교 광주대교구

류 정 희

전남대학교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가톨릭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과정이 참여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천주교 광주대교구와 전주교구의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과정에 참여한 청년 40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와 종교성의 하위요소로서 종교태도, 내재적 종교성향, 공협형 종교대처를 측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는 대응표본 t검증을 활용하여, 연수봉사자들의 종교태도, 내재적 종교성향, 공협형 종교대처와 삶의 만족도가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교태도의 하위요인 중 신경에 대한 동의, 경건성 그리고 종교생활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교회출석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내재적 종교성향, 공협형 종교대처와 삶의 만족도 역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 같은 결과와 결과에 대한 해석과 함께 본 연구의 시사점과 특정지역의 과정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등의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핵심 주제어 : 가톨릭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과정, 종교태도, 내재적 종교성향, 공협형 종교대처, 삶의 만족도

* 이 연구에 협조해주신 광주대교구 최윤복 신부님과 전주교구 양재식 신부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I. 문제제기

청년기¹⁾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이다. 즉 오랜 정규 과정인 학교교육을 마친 시점과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는 시점 사이에 놓인 중간시기로 경제와 직업의 위기, 이성과 결혼의 위기, 대인 관계의 위기, 삶의 의미와 진로의 위기를 겪게 되는 시기이다.²⁾ 특히 우리나라 사회구조는 청소년들이 그 시기의 발달 과정에 충실할 수 없는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자신과 삶의 문제에 궁극적인 질문을 던져야하는 청소년기에 대학 입시에 짓눌려 이 문제들을 그대로 청년기에 안고 가는 것이다.³⁾ 이와 같은 청년들의 문제에 맞서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종교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종교는 긴장을 해소하고, 박탈당하고 좌절당한 이에게 위로를 제공하며, 소속의식을 부여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⁴⁾

한편, 청년사목은 종교 내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그리고 청년을 위해 이뤄지는 사목활동을 말한다. 청년사목의 목적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그리스도 구원의 가치를 알려주고 복음의 정신으로 사는 길이 참 삶의 길임을 제시해주는 것이다.⁵⁾ 그런데 지금까지 청년사목의 방향은 양적 성장에 치우쳐 청년들의 질적 성장에는 소홀하여 청년사목의 본연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었다. 즉, 청년 수의 증가에만 관심을 둘 뿐 교회 내에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부 청년들은 교회가 영적인 갈망을 느끼는 청년들의 욕구에 충실하지 않다거나, 청년들을 위한 신앙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함을 호소하기도 한다.⁶⁾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박기호는 연례행사와 같은 피정과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조직적이고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필요충분조건을 채우는 프로그램 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가톨릭 청년성서모임(이하: 청년성서)을 꼽는다.⁷⁾ 게다가 배상엽은 '90년대의 청년사목은 가톨릭 청년성서모임이 거의 이루어졌다'⁸⁾고 한다. 그럼에도 청년성서가 청년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경험적

1) 여기서 청년기는 가톨릭 교회에서 청년사목의 대상으로 보는 결혼에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35세까지의 젊은이를 말한다. 배상엽, 『오늘의 위기는 내일을 위한 호기-청년사목의 현황과 진단』, 『생활성서』247 (광주: 생활성서사, 2004), 62쪽; 강영목, 『현대사회의 청년사목의 방향에 대한 조사연구-대구대교구 본당 청년의 신앙생활과 의식을 중심으로』(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6-7쪽.

2) 문용린, 『청년의 발달적 위기와 사목 방향』, 『사목연구』17 (서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2006), 9-16쪽.

3) 송차선, 『한국 교회 안에서의 청년에 대한 논평』, 『사목연구』17 (서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2006), 41-45쪽.

4)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서울: 나남출판, 2005), 215-218쪽.

5) 김민수, 『가톨릭 청년운동과 청년사목』, 『경향잡지』1526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26쪽.

6) 임재중 편, 『좌담-복음 중심의 청년 사목을 향하여』, 『사목』328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 52-73쪽.

7) 박기호, 『인생은 즐겁고 할 일은 널려 있다』, 『사목』328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 12-21쪽.

8) 배상엽, 앞의 글, 63쪽.

인 연구는 지금껏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청년성서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겨우 최재영의 논문과 손희송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 역시 청년성서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도의 개괄적 연구로 실제로 청년들 개개인에게 청년성서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탐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청년성서가 청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청년성서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리 이뤄지고, 연수도 매년 다르기 때문에 청년성서의 일부과정인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과정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성서연수는 성서 그룹 공부를 마친 이들의 단기교육과정으로 3박 4일의 프로그램이다. 이 연수는 한 명의 연수 지도 신부와 봉사자들로 운영되는데 이 봉사자들은 연수 3-4개월 전에 지원하여 소정의 과정을 통해 양성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연수 전 3-4개월 간의 봉사자 양성과정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과정을 보완하고 활성화 하는데 제언하고, 미래의 청년 프로그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연구문제들을 제기하였다.

- 첫째, 청년성서 봉사자 양성과정이 봉사자들의 종교태도를 향상시킬 것인가?
- 둘째, 청년성서 봉사자 양성과정이 봉사자들의 내재적 종교성향을 증가시킬 것인가?
- 셋째, 청년성서 봉사자 양성과정이 봉사자들의 공협형 종교대처를 증가시킬 것인가?
- 넷째, 청년성서 봉사자 양성과정이 봉사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것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종교활동이 종교성, 종교대처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선행연구에 따르면 종교관련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종교성, 종교대처 및 삶의 질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종교적 믿음은 견고해지고 영적 경험은 풍부해져 내부의 부정적 감정들은 완화된다. 즉 종교활동을 많이 할수록 높은 종교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종교의 교리는 가족을 지원하고,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럼으로써 건전한 생활 유형과 가치를 갖게 한다. 종교는 결국 성실한 생활을 유도함으로써 친사회적 행위를 하고 건전한 생활양식을 가능케 한다.⁹⁾ 또한 선행연구에서 종교태도의 하위요소들

9) 김정규,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 성행위에 대한 인과요인의 변이: 부모통제, 종교성, 비행친구, 비행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3) (서울: 한국사회학회, 2006), 120-123쪽; Benda, B. B., & Corwyn, R. F.,

은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둘째, 종교활동은 가까운 사람들과 관련된 곤혹스런 생애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오는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종교성의 수준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종교적으로 대처하는 기술이 종교활동을 통해 학습되기 때문이다.¹¹⁾ 또한 기도와 같은 사적 종교활동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찾고 문제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하였다.¹²⁾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 중 공협형 종교대처¹³⁾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느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안녕감에 정적 예언 변수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¹⁴⁾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변수로 작용 하였다.¹⁵⁾ 즉 종교가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어떤 종교 대처 방식을 갖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교회참석, 기도, 신앙심 등 다양한 차원에서 종교활동이 스트레스 요인들에 노출될 가능성을 제거하거나 그 정도를 낮게 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의 상태로 이끌었다. 또한 종교활동은 자아존중감이나 효율감, 자아증진, 정체감, 내외적 통제감, 자아실현과 같은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킨다.¹⁶⁾ 왜냐하면 종교의 교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문

“Religion and Delinquency: the Relationship after Considering Family and Peer Influenc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6: 1, 1997, pp. 81-92; Scheepers, P., Grotenhuis, M. T., & Slik, F. V(der)., “Education, Religiosity and Moral Attitudes: Explaining Cross-national Effect Differences”, *Sociology of Religion*, 63: 2, 2002, pp. 157-176.

- 10) 조발그니·류정희, 「가톨릭 청년의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천주교 광주대교구의 경우」 『종교연구』 51 (익산: 한국종교학회, 2008), 193-225쪽.
- 11) Pargament, K. I., Kennell, J., Hathaway, W., Grevengoed, N., Newman, J., & Jones, W., “Religion and the Problem-solving Process: The Styles of Coping”,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7: 1, 1988, pp. 90-104; Pargament, K. I., Smith, B. W., Koenig, H. G., & Perez, N., “Patterns of Positive and Negative Religious Coping with Major Life Stressor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7(4), 1998, pp. 710-724.
- 12) Ellison, C. G., Boardman, J. D., Williams, D. R., & Jackson, J. S., “Religious Involvement, Stress, Mental Health: Findings from the 1995 Detroit Area Study”, *Social Forces*, 80: 1, 2001, pp. 215-249.
- 13) 종교대처는 3가지로 분류되는데, 자기 주도형(Self-direction style)은 신이 인간에게 자유와 책임을 부여했다는 신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 신을 배제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유형이다. 책임전가형(Deferring style)은 신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기대하고 문제해결 책임을 신에게 맡기고 자신은 수동적으로 남아있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공협형(Collaborative style)은 문제해결의 책임이 본인과 신에게 다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에 처했을 때 신의 뜻을 찾으며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유형이다(제석봉, 2002; Pargament, K. I., Kennell, J., Hathaway, W., Grevengoed, N., Newman, J., & Jones, W., 1988).
- 14) Szewczyk, L. S., & Weinmuller, E. B., “Religious Aspects of coping with Stress among Adolescent from Families with Alcohol Problems”.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9: 4, 2006, pp. 389-400.
- 15) Granqvist, P., “Building a Bridge between Attachment and Religious Coping: Tests of Moderators and Mediators”,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8: 1, 2005, pp. 35-47.
- 16) Batson, C. D., “Religion as Prosocial: Agent or Double Agent?”,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5: 1, 1976, pp. 29-45.

제 상황에 대한 해석 및 의미 체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종교의 교리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도움을 제공하고, 희망과 안전,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 및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때문이다.¹⁷⁾ 선행연구에서도 교회 안에서의 조직 활동은 삶에 대한 만족감을 예언하는 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⁸⁾ 종교활동은 사회적 그물망(social network)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에게 발생하는 문제들의 충격을 줄여준다.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보다 넓은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사회적 그물망을 형성할 수 있고, 그 그물망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의 기회도 그만큼 많아 질 것이며 따라서 보다 나은 안정적인 삶의 질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¹⁹⁾ 종교 안에서 인간관계는 정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을 제공하고 소속감과 결속력을 지속시켜 주며 문제를 해결하는 협조자의 역할을 한다. 또한 자신 역시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종교공동체가 위협에 처한 사람을 돕고, 성행위, 가족생활에 대한 윤리를 제공하여,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종교공동체가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성을 증진시키는데, 이는 종교가 종교 자아가치를 증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동료애를 강조하기 때문이다.²⁰⁾

이 연구는 청년의 종교활동의 한 예로서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과정을 살펴보았다.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과정은 일차적으로 2박 3일간의 청년성서연수를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연수봉사자들은 청년성서연수에서 이루어질 프로그램들 각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이를 미리 스스로 체험하는 시간들을 갖는다. 그러나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과정의 원래의 목표는 “말씀 안에 살자”이다. 연수봉사자 양성과정 동안 이들은 청년성서연수를 위한 9일기도를 하며, 모든 준비모임의 시작은 정해진 주제(예: 창조: 그 부르심, 화해와 용서, 사랑체험 등)에 대한 성서구절을 읽고 각자 그러한 주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 것들을 자신의 생활에 접목하여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연수준비 자체가 성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청년성서의 목적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교구 청년성서 지도신부들의 조언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종교성과 삶의 만족도를 측정변수로 설정하여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과정이 실제로 참여 청년들의 종교성과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또한 청년성서가 많은 청년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년시기 종교활동의 구체적인 예로서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과

17) Bergin, A. E., “Religiosity and Mental Health: A Critical Reevaluation and Meta-analysi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4, 1983, pp. 17-184.

18) 조발그니 · 류정희, 앞의 글, 193-225쪽.

19) Ellison, C. G., Boardman, J. D., Williams, D. R., & Jackson, J. S., 앞의 글, pp. 215-249.

20) Ellison, C. G., “Introduction to Symposium: Religion, Health, and Well-being”,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7: 4, 1998, pp. 692-694.

정이 청년들의 종교성, 종교대처 및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2. 교회 안에서 청년의 자리

청년사목의 목적은 “물질적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뚜렷한 삶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체로서 살아가도록 초대”²¹⁾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사목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그리스도의 생명체로서 살아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청년 사목의 현황, 진단, 문제점, 해결점, 방향을 제언 하는 데에 머물러 있었다.²²⁾ 즉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 현상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더 문제는 청년들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회 내 관심 부족이다. 청년들은 실제 본당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들에 동원 1순위이지만 그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 없이 힘의 소비를 강요하고 있다.²³⁾

청년사목을 위한 관심부족과 전문사목자의 부족은 결국 청년들의 신자교육 기회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사실 신심 고취, 복음화 이런 단어들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본당 자체 교육프로그램도 없고 성경모임 정도가 유일할 거예요”²⁴⁾와 같은 증언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교회 내 청년사목의 현실은 청년들의 신앙에 대한 회의를 포함한 미지근한 신앙심과 나태함으로 이어지게 된다.²⁵⁾ 청년들은 살아있는 신앙체험의 기회를 원하고 있다.²⁶⁾

특히 청년사목의 핵심은 공동체의 관계성 안에서 사회적 그물망을 형성하는 대인관계가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청년사목에 있어서 주체는 사목자가 아니라 바로 청년들이다.²⁷⁾ 청년의 종교성이 공동체의 관계성 안에서 성장하고, 나아가 청년자신이 사목의 주체라고 할 때 청년지도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년지도자들을 청년들 사이에서 양성하여 이들이 교회의 청년들 개개인에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청년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며, 청년사목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한

21) 최준규, 「청년 사목의 방향 모색」 『사목연구』 17 (서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2006, 91쪽.

22) 최준규, 앞의 글, 94쪽.

23) 안태환, 「교회 내 청년활동의 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사목』 223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54쪽.

24) <진단 청년사목 7. 청년신자교육> 《가톨릭신문》, 2006년 7월 30일자, http://www.catholictimes.org/news/news_view.cath?seq=32990에서 인출.

25) 최재영, 「청년신자의 새로운 복음화-청년성서모임을 통한 청년신자의 새로운 복음화 모색」,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43쪽.

26) <진단 청년사목 10. 30대 청년사목> 《가톨릭신문》, 2006년 9월 3일자, http://www.catholictimes.org/news/news_view.cath?seq=33449에서 인출.

27) “청년은 단순히 사목대상이 아니라 청년사목의 주체이다” 천주교서울대교구 본당청년사목부, 『청년사목 자료 1 새로운 본당청년공동체를 위하여』 (서울: 천주교서울대교구, 1998), 15쪽.

예로 들 수 있는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과정을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청년 신앙교육의 현실과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사목 목적 실현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3. 가톨릭 청년성서모임과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과정

성경을 통한 청년신앙프로그램은 청년기에 처한 상황을 종교적으로 대처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고, 종교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²⁸⁾

이 연구에서 살펴 볼 청년성서는 첫째, 활동 혹은 친교가 아닌, 철저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영성운동이며 하느님 체험운동이다. 둘째, 강의가 아닌 소그룹 단위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신앙과 삶을 나누는 소공동체 운동이다. 청년성서는 1972년에 시작하여 36년여 간 놀라운 성장과 확산을 이루고 있다. 현재 매년 5,000 여명의 청년들이 연수체험을 하고, 수천 개의 그룹을 형성하여 말씀의 봉사자로 활동하고, 전국 모든 교구는 물론 해외유학생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²⁹⁾ 청년성서모임의 두 축은 소그룹 단위의 성서 공부와 성서연수이다. 그룹공부는 그룹 봉사자 1명과 그룹원 4-8명이 함께 모여 가톨릭 청년 성서모임에서 발간한 교재를 중심으로 매주 진행된다. 성서연수는 성서 그룹 공부를 마친 이들이 말씀의 봉사자가 되고자 받는 일종의 단기교육과정으로 그룹공부를 정리하고 성서를 더욱 깊게 이해하는 과정이다. 한명의 지도자와 연수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연수는 강의, 그룹 나눔, 공동기도, 미사, 고해성사로 구성된 3박 4일의 일정이다.³⁰⁾ 요컨대, 많은 이들이 청년성서를 청년을 위한 신앙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현재 가장 효과적인 교육의 장이라는데 동의한다.³¹⁾

청년성서모임이 성공을 거두는 요인은 소그룹 단위의 성서공부를 통해 성경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를 통한 나눔이 이루어지고, 성서연수를 통해 신앙체험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³²⁾

청년성서에서 말씀의 봉사자의 양성은 청년성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이 말씀의 봉사자는 성서연수를 통해 양성되고, 파견된다.³³⁾ 따라서 성서연수는 “부활체험”이요, ‘구원 체험’의 과정이며, 청년성서의 꽃이자, 영성의 근원이요 원체험의 장”이다.³⁴⁾

이러한 청년성서 연수를 주관하는데 있어 중심 역할을 하는 이들이 연수봉사자들이다.

28) 최재영, 앞의 논문, 52쪽.

29) 배상엽, 앞의 글, 70-76쪽.

30) 손희송, 『가톨릭 청년성서모임과 청년사목의 미래』 『사목』328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협의회, 2006), 25-27쪽.

31) 강영목, 앞의 논문, 43쪽; 박기호, 앞의 글, 20쪽; 배상엽, 앞의 글, 69-70쪽; 손희송, 하느님 체험과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성찰-가톨릭 청년성서모임을 중심으로, 『사목연구』11 (서울: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2003), 198쪽; 최재영, 앞의 논문, 104-108쪽.

32) 손희송, 앞의 글, 27쪽.

33) 최재영, 앞의 논문, 96-98쪽.

34) 가톨릭 청년성서모임 편집부, 『보시기 좋은 사람들과의 10년』 『말씀의 방』 92 (서울: 가톨릭 청년성서모임, 1998), 17쪽.

연수봉사자들은 성서연수 3-4개월 전에 지원을 하고, 봉사자가 최종 선발되면 부서가 꾸려진다. 대체로 연수를 총 진행하는 진행 담당자와 부 진행 담당자 그리고 전례, 찬양, 미화부서로 구분된다. 연수봉사자들의 연수 준비는 연수 시작 약 2-3개월 전에 발대미사로 시작된다. 이 연구에서의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과정이란 발대미사를 시작으로 연수봉사자들의 연수준비와 기도모임, 성서연수를 거쳐 감사미사까지 3박4일 연수 전후 봉사자로서 거치는 전 과정을 일컫는다.

발대 미사 후 전체 봉사자는 전례와 찬양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청년성서 담당 신부나 수녀로부터 받으며 매주 2-3시간 정도의 정기적 기도모임을 갖는다. 이 기도모임이 성서연수 봉사자 모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매주 기도모임에서는 영적 독서를 통해 성서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수 봉사자 간에 일상적인 생활 나눔과 연수를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 등을 나누고,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한다. 모임의 영적독서는 성서연수에서 다루어질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예컨대, 창세기 성서연수의 경우, “창조 그 부름심”은 현재의 나를 창조해주시고 연수에까지 불러주신 하느님의 부름심을 다룬다. 또한 “화해와 용서”는 자신의 모습 중 드러내기 힘든 일이나 고민스러운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있어 가장 힘들었거나 고민스러운 일은 무엇이었는지 그때 하느님께서 무슨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는지 등을 묵상과 나눔 주제로 한다. 각 주제는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수봉사자들은 모임 전에 주제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나눔을 준비해온다.

이 기도모임을 통해 연수 봉사자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기도를 생활화하게 된다. 또한 기도모임 안에서의 나눔은 연수 봉사자 간의 깊이 있는 인간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각 부서는 주기적으로 부서 담당 일들을 위한 부서별 모임을 필요에 따라 주 1-2회 정도 갖는다. 이와 같은 양성과정 이 후에 이들은 3박 4일의 청년성서연수를 연수 참가자가 아닌 연수봉사자로서 체험하게 되고, 이 후 봉사자 감사미사를 통해 연수봉사를 마무리한다.

이 연구는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에 초점을 두고, 이들에게 양성과정 초기와 양성과정과 성서연수 후, 봉사자 감사미사 시기에 종교태도, 내재적 종교성향, 공협형 종교대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과정이 연수봉사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천주교 광주대교구와 전주교구의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 과정에 참여한 청년 40명(남자 15명 37.5%, 여자 25명 62.5%)이었다. 평균 나이는 25.4세였으며 19세 이전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이 90%를 차지했다. 연구대상의 신앙연수는 평균 16.9년이었고, 교회 활동 단체 수는 1-3개가 90%로 거의 한 개 이상의 단체 활동을 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자는 대학생이 45%, 직장인 37.5%, 취업준비생 17.5%였다.

청년성서 연수는 여름과 겨울에 약 3-4회 정도 실시되며, 한 회에 80-150여명의 청년들이 연수에 참석한다. 즉 천주교 광주대교구와 전주교구의 청년성서 연수과정 연수봉사자 40여명은 약 400여명의 청년들의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광주대교구나 전주교구의 청년 활동이 활발한 본당의 경우 청년 수가 30-40 여명 정도이고 그 정도의 청년들이 활동하는 본당의 수가 교구 전체에서 20% 미만인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이 만나는 청년들의 수는 교구 전체 청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2. 측정도구

1) 종교태도

킹과 헌트(King & Hunt)³⁵⁾는 종교성의 다차원적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종교성의 차원을 세 가지 영역, 열세 가지³⁶⁾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재정보조를 제외한 기본적인 종교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또한 그 내용이 종교적 자세와 태도에 관련되어서 ‘종교태도’로 명명하였다. 종교태도는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하위요소는 다음을 의미한다. ‘신경에 대한 동의’는 교리적 믿음에 대한 동조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경건성’은 개인적인 신앙적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회출석’은 예배와 성례전예의 참여정도를, ‘조직활동’은 공식적인 의례 이외의 여러 조직 활동에의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종교생활’은 종교지도자와 구성원들과 관계 및 종교서적의 열람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킹과 헌트가 산출한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0이었다.

이 연구 대상으로부터 산출한 종교태도 검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사전검사 하위요인

35) King, M. B., & Hunt, R., “Measuring the religious variables: National replicat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4, 1975, pp. 13-22.

36) ① 기본적인 종교적 척도(신경에 대한 동의(creedal assent), 경건성, 교회출석, 조직활동, 재정보조, 종교생활) ② 혼합적인 종교적 척도(행위의 정도, 인식의 정도, 정규적 활동, 종교적 실패) ③ 인지적 양태 변수(모호성에 대한 관용성 정도, 삶의 목적-긍정적, 삶의 목적-부정적).

별로 .69~.91, 사후검사 하위요인별로 .73~.93의 범위에 속하였으며, 전체 사전검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3, 전체 사후검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3이었다.

2) 종교성향

이 연구에서 활용한 종교성향 척도는 제석봉과 이성배³⁷⁾가 올포트와 로스(Allport & Ross)의 척도를 번안하여 개발한 한국판 종교성향개발검사 중 내재적 종교성향 척도를 활용하였다. 총 13개의 문항으로 된 한국판 종교성향개발검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1이었다. 이 연구대상으로부터 산출한 내재적 종교성향³⁸⁾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사전검사에서는 .93, 사후검사에서는 .90이었다.

3) 종교대처

이 연구에서 사용한 파거먼트 등(Pargament et al.)³⁹⁾이 개발한 종교 문제해결 척도는 공협형, 자기주도형, 책임전가형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하위요인은 문제해결 과정의 구성요소인 문제의 정의, 대안들의 생성, 해결방안의 선택, 문제의 재정의, 자기감정 통제를 측정하는 2개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파거먼트 등⁴⁰⁾의 내적 일치도가 높은 문항 18개로 구성된 축소판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종교대처 방식으로 평가되는 공협형 척도 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파거먼트 등(Pargament et al., 1998)이 산출한 공협형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7이었다. 이 연구대상으로부터 산출한 공협형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사전검사에서는 .91, 사후검사에서는 .81이었다.

4)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는 패벗과 디너(Pavot & Diener)가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⁴¹⁾ 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원저자들은 내적 일치도

37) 제석봉 · 이성배, 『종교성향검사(ROS)의 개발과 종교적 성향이 적응 및 종교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종교연구』 11: 1 (서울: 한국종교학회, 1995), 245-280쪽.

38) 외재적 종교 성향의 사람들은 종교를 여러 방면에 수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내재적 종교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신앙을 그 자체로서 최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9) Pargament, K. I., Kennell, J., Hathaway, W., Grevengoed, N., Newman, J., & Jones, W., 앞의 글, pp. 90-104.

40) Pargament, K. I., Smith, B. W., Koenig, H. G., & Perez, L., "Patterns of Positive and Negative Religious Coping with Major Life Stressor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7: 4, 1998, pp. 710-724.

41) 삶의 만족도란 개인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의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Pavot, W., & Diener, E.,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 2, 1993, pp. 164-172.

계수를 .87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대상으로부터 산출한 삶의 만족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사전검사에서 .84, 사후검사에서 .91이었다.

3. 연구절차

2007년 10월 청년성서 연수 봉사자 첫 모임에서 연구자들이 설문지를 배부하고, 직접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실시 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 후 약 3개월간의 연수 전 양성과정이 있었고 연수 봉사자들은 1월에 3박 4일간의 청년성서 연수에 봉사자로서 참여하였다. 이들이 연수를 마친 이후의 마지막 만남인 2008년 2월 감사미사 후에 동일한 검사를 사후검사로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12.0(Windows ver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측정변인(종교태도, 내재적 종교성향, 공협형 종교대처, 삶의 만족도)에 대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치의 유의도는 $p < .05$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IV. 연구결과

1. 종교태도에 나타난 효과

가톨릭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 종교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점수를 대응표본 t 검증 분석 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측정시기에 따른 종교태도의 대응표본 t 검증

	사전검사		사후검사		<i>t</i>	<i>p</i>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신경에 대한 동의	4.07	.69	4.27	.60	-2.309*	.026
경건성	3.52	.73	3.79	.67	-2.238*	.031
교회출석	3.78	.83	3.51	.88	2.198*	.034
조직활동	3.89	.67	3.90	.76	-.045	.964
종교생활	2.98	.71	3.28	.72	-2.738**	.009

* $p < .05$. ** $p < .01$.

t 검증 결과 종교태도 하위요인 중 신경에 대한 동의, 경건성, 종교생활은 양성과정 이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종교생활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한 증가($p < .01$)를 보였다. 그러나 교회출석은 양성과정 참여 이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양성과정 참여가 교회의 가르침을 더 따르게 되고 교리의 내용을 깨닫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도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성경을 읽고 이를 이웃들과 나누며 자신의 이웃들에게 신앙을 증거 하는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당미사 참석률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조직 활동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연수봉사에 참여 이전에 연구대상자들이 이미 1개 이상의 교회 단체에 활동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내재적 종교성향에 나타난 효과

양성과정이 내재적 종교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점수를 대응표본 t 검증 분석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t 검증 결과 내재적 종교성향은 양성과정 이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양성과정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삶의 문제를 신앙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종교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내재적 종교성향을 높여 줌을 알 수 있다.

〈표 2〉 측정시기에 따른 내재적 종교성향의 대응표본 t 검증

	사전검사		사후검사		<i>t</i>	<i>p</i>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내재적 종교성향	3.45	.63	3.69	.55	-3.106**	.004

** $p < .01$.

3. 공협형 종교대처에 나타난 효과

양성과정이 공협형 종교대처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점수를 대응표본 t 검증 분석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측정시기에 따른 공협형의 대응표본 t 검증

	사전검사		사후검사		<i>t</i>	<i>p</i>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공협형	3.43	.76	3.73	.59	-2.949**	.005

** $p < .01$.

t 검증 결과 종교대처 방법 중 공협형은 청년성서 연수 봉사자 과정 이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양성과정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느님과 함께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 공협형의 종교대처 방식을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 연수 봉사자 양성과정 참여 후 이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자신이 그 안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더 갖게 된다는 것이다.

4. 삶의 만족도에 나타난 효과

양성과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점수를 대응표본 t 검증 분석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측정시기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대응표본 t 검증

	사전검사		사후검사		<i>t</i>	<i>p</i>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삶의 만족도	2.87	.80	3.31	.93	-3.958***	.000

*** $p < .001$.

t 검증 결과 삶의 만족도는 청년성서 연수 봉사자 과정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청년성서 연수 봉사자 과정을 체험 한 청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더욱 만족하게 평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른 종속변수에 비해 삶의 만족도는 가장 유의한 증가($p < .001$)를 보이고 있다. 이는 청년시기에 겪게 되는 위기를 양성과정이 해소해주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고, 또한 긴장을 해소하고 위로를 제공하는 종교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과정이 청년들의 종교태도, 내재적 종교성향, 공협

형 종교대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천주교 광주대교구와 전주교구의 청년성서 연수봉사자로 참여한 청년 40명을 대상으로 청년성서 연수 봉사자 첫 모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들이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과정과 청년성서 연수를 마친 후 함께하는 감사미사에서 동일한 검사를 사후검사로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과정이 종교태도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결과, 신성에 대한 동의, 경건성, 종교생활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교회출석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즉,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과정을 받은 후 청년들이 더욱 그리스도의 현존을 믿게 되고,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졌다'와 같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동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더 많이 느끼며, 교회의 구성원들과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게 됨을 알 수 있다.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과정의 핵심인 주마다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기도모임에서의 영적독서와 기도가 청년들이 생활 안에서 기도를 가까이 하고,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것을 자연스럽게 조성해주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종교생활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이들이 일명 '발바닥 신자'가 아니라 일상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종교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엘리슨 등 (Ellison et al.)⁴²⁾의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과정의 내용처럼 본당에서의 청년 프로그램이 정기적인 기도와 더불어 성서 안의 묵상 거리들을 찾아 자신의 생활 안의 신앙적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청년들의 종교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미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교회출석에 있어서는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이는 3-4개월 정도 실시되는 연수봉사자 양성과정이 정기적 모임과 부서별 모임들로 주 3회 이상 이루어져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미사나 활동에 소극적이 된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또한 최재영 논문의 제언처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본당공동체와 소홀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청년성서의) 전례와 찬양의 양식에 너무도 익숙한 나머지 교회 전통 안에서 이어오는 전례나 성가에 소홀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⁴³⁾

연수봉사 참여가 교회출석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4명의 연수봉사자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연수 참여나 연수봉사 후 그들에 대한 본당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청년성서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모임을 갖는다면 혹은 본당 차원에서 새로운 청년성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모집 활동 등을 펼치는 경우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교회 출석이 줄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왜냐하

42) Ellison, C. G., Boardman, J. D., Williams, D. R., & Jackson, J. S., 앞의 글, pp. 215-249.

43) 최재영, 앞의 글, 110쪽.

면 이들은 성서연수 안에서 가졌던 성서묵상과 나눔, 기도 등을 할 수 있는 교회 내 활동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중 일부는 본당 안의 기도모임이나 레지오와 같은 신심 단체에 가입하기도 한다. 요컨대, 교회출석 저하는 한편으로는 본당의 일상적 전례에 대한 소극적 태도로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활동과 갈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청년성서 연수봉사 후 그들의 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본당 내에서 이들이 활동의 체험을 유지시킬 수 있는 사목적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과정의 내재적 종교성향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결과, 내재적 종교성향은 양성과정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과정의 청년들이 자신의 일상의 문제들을 신앙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삶 안에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내재적 종교성향을 높여줌을 알 수 있다. 이는 양성과정 과정과 성서연수 안에서의 동료봉사자들과 연수 참가자들의 변화를 보며 갖게 되는 신앙체험을 통해 가능해진다고 생각된다. 또한 내재적 종교성향이 종교적 성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⁴⁴⁾,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과정의 종교적 성숙을 촉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성과정 중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되고 타인과 나눔을 통해 상호성장이 이뤄지고, 또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경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과정의 공협형 종교대처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결과, 과정 후 공협형 종교대처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공협형 종교대처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도 좋은 방안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대처방법으로서 문제를 하느님과 대화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도 하느님과 함께 그 문제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대처방법이다.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과정에서 이루어진 정기적인 기도모임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동료 봉사자들과 나누며 해결책을 찾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하는 것이 공협형 종교대처를 증가시킨 것이라 생각된다. 전술한대로 양성과정 중 핵심은 기도였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 문제를 하느님과 동료들과 함께 해결할 가능성을 찾았다. 또한 자신의 문제를 하느님을 배제하고 해결하려 한다거나(자기 주도형), 하느님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책임전가형) 올바른 종교성숙이 아니라고 볼 때⁴⁵⁾, 청년성서 양성과정의 올바른 종교성숙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하느님과 함께하려는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과정의 삶의 만족도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결과, 과정 후 삶의 만족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과정 후 봉사자들은 더

44) Allport, G. W., & Ross, J. M.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1967, pp. 432-443.

45) Pargament, K. I., Kennell, J., Hathaway, W., Grevengeod, N., Newman, J., & Jones, W., 앞의 글, pp. 90-104.

욱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수봉사자 양성과정을 통한 신앙체험과, 연수봉사자 안의 친밀한 대인관계, 연수 후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 등이 삶의 만족도 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종교태도의 하위요소들과 삶의 만족도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⁴⁶⁾ 내재적 종교성향과 안녕감은 서로 상호작용할 뿐 아니라,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을 때 안녕감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것⁴⁷⁾으로 보아 종교태도와 내재적 종교성향의 유의한 증가가 삶의 만족도를 높였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전술한대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변화 과정에 있는 청년들에게 삶의 만족이 중요한 부분이고 이 시기에 긴장을 해소하고 위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고 볼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다른 변수에 비해 삶의 만족도의 증가는 가장 유의한 수준($p<.001$)을 보였다. 이는 가톨릭 청년성서 봉사자 양성과정이 청년들의 안녕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처음으로 청년성서의 효과에 대해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과정이 종교태도와 내재적 종교성향, 공형형 종교대처,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청년을 위한 교회프로그램 중 청년성서가 그들의 종교성숙을 도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하느님과 함께 하도록 도와주며 그들의 삶의 질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임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시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천주교 광주대교구와 전주교구라는 특정지역의 청년성서 연수봉사자 양성과정을 거친 봉사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상이한 지역의 연수봉사자 양성과정에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통제집단이 없이 청년성서 양성과정의 봉사자만을 대상으로 종속변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추후에는 통제집단이나 혹은 청년성서 양성과정과 유사한 청년프로그램의 참여자를 함께 비교하는 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한 변수의 측정만을 실시하여 연수봉사자들의 생생한 신앙체험을 수집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미래연구에서는 질적연구인 심층면담, 참여관찰, 포커스 집단을 통해 연수봉사자 양성과정의 어떤 활동이 구체적으로 연수봉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6) 조발그니·류정희, 앞의 글, 193-225쪽.

47) 김동기, 「종교인들의 심리적 안녕감(행복)에 대한 종교적 내재성 및 종교정향의 상호작용 연구」 『종교연구』 39 (서울: 한국종교학회, 2005), 107-133쪽.

참고문헌

- 가톨릭 청년성서모임 편집부, 『보시기 좋은 사람들과의 10년』 『말씀의 방』 92 (서울: 가톨릭 청년성서모임, 1998).
- 강영목, 『현대사회의 청년사목의 방향에 대한 조사연구-대구대교구 본당 청년의 신앙생활과 의식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동기, 「종교인들의 심리적 안녕감(행복)에 대한 종교적 내재성 및 종교정향의 상호작용 연구」 『종교연구』 39 (서울: 한국종교학회, 2005).
- 김민수, 「가톨릭 청년운동과 청년사목」 『경향잡지』 1526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 김정규,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 성행위에 대한 인과요인의 변이: 부모통제, 종교성, 비행 친구, 비행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 3 (서울: 한국사회학회, 2006).
- 문용린, 「청년의 발달적 위기와 사목 방향」 『사목연구』 17 (서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2006).
- 박기호, 「인생은 즐겁고 할 일은 널려 있다」 『사목』 328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
- 배상엽, 「오늘의 위기는 내일을 위한 호기-청년사목의 현황과 진단」 『생활성서』 247 (광주: 생활성서사, 2004).
- 배상엽, 「서울대교구 청년활동 소개」 『사목연구』 17 (서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2006).
- 손희송, 「가톨릭 청년성서모임과 청년사목의 미래」 『사목』 328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
- 손희송, 「하느님 체험과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성찰-가톨릭 청년성서모임을 중심으로」 『사목연구』 11 (서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2003).
- 송차선, 「한국 교회 안에서의 청년에 대한 논평」 『사목연구』 17 (서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2006).
- 안태환, 「교회 내 청년활동의 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사목』 223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97).
- 엄재중 편, 「좌담-복음 중심의 청년 사목을 향하여!」 『사목』 328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
-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 나남출판, 2005.
- 〈진단 청년사목 7. 청년신자교육〉, 《가톨릭신문》, 2006년 7월 30일자.
- 〈진단 청년사목 10. 30대 청년사목〉, 《가톨릭신문》, 2006년 9월 3일자.
- 제석봉 · 이성배, 「종교성향검사(ROS)의 개발과 종교적 성향이 적응 및 종교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종교연구』 11: 1 (서울: 한국종교학회, 1995).
- 조발그니 · 류정희, 「가톨릭 청년의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천주교 광주대교구의 경우」 『종교연구』 51 (익산: 한국종교학회, 2008).
- 천주교서울대교구 본당청년사목부, 『청년사목자료 1 새로운 본당청년공동체를 위하여』 (서울: 천주교서울대교구, 1998).
- 최재영, 「청년신자의 새로운 복음화-청년성서모임을 통한 청년신자의 새로운 복음화 모색」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최준규, 「청년 사목의 방향 모색」 『사목연구』 17 (서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2006).
- Allport, G. W., & Ross, J. M.,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1967.

- Batson, C. D., "Religion as Prosocial: Agent or Double Agent?",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5: 1, 1976.
- Benda, B. B., & Corwyn, R. F., "Religion and Delinquency: the Relationship after Considering Family and Peer Influenc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6: 1, 1997.
- Bergin, A. E., "Religiosity and Mental Health: A Critical Reevaluation and Meta-Analysi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4, 1983.
- Ellison, C. G., Boardman, J. D., Williams, D. R., & Jackson, J. S., "Religious Involvement, Stress, Mental Health: Findings from the 1995 Detroit Area Study", *Social Forces*, 80: 1, 2001.
- Ellison, C. G., "Introduction to Symposium: Religion, Health, and Well-being",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7: 4, 1998.
- Granqvist, P., "Building a Bridge between Attachment and Religious Coping: Tests of Moderators and Mediators",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8: 1, 2005.
- King, M. B., & Hunt, R., "Measuring the Religious Variables: National Replicat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4, 1975.
- Pargament, K. I., Smith, B. W., Koenig, H. G., & Perez, N., "Patterns of Positive and Negative Religious Coping with Major Life Stressor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7: 4, 1998.
- Pargament, K. I., Kennell, J., Hathaway, W., Greengood, N., Newman, J., & Jones, W., "Religion and the Problem-solving Process: the Styles of Coping",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7: 1, 1988.
- Pavot, W., & Diener, E.,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 2, 1993.
- Scheepers, P., Grotenhuis, M. T., & Slik, F. V(der), "Education, Religiosity and Moral Attitudes: Explaining Cross-national Effect Differences", *Sociology of Religion*, 63: 2, 2002.
- Szewczyk, L. S., & Weinmuller, E. B., "Religious Aspects of Coping with Stress among Adolescent from Families with Alcohol Problems",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9: 4, 2006.

원고접수: 2009년 1월 18일 1차심사: 1월 29일 게재승인일: 2월 4일

연구자 소개: 조발그니

- ① 전공: 교육학 / 소속: 천주교 광주대교구
- ② 관심영역: 청소년 종교교육, 종교성, 교육복지, 유학생
- ③ 주요논저: 프랑스 ZEP이 한국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 보완에 주는 시사점 (2005), 청소년의 종교성과 도덕성 배경변인별 차이와 관계 분석-광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2007), 가톨릭 청년의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2008)
- ④ E-mail: jovinent@hanmail.net

연구자 소개: 류정희

- ① 전공: 교육학 / 소속: 전남대학교
 - ② 관심영역: 정신건강, 유능감, 자기존상전략, 학교적응
 - ③ 주요논저: 시험불안, 동기적 성취전략 및 학업적 유능감의 관계모형 검증(2006), 교사보고형 초등학생 학교적응행동 평정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2006),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 그 구조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2007)
 - ④ E-mail: teodosia@naver.com
-

Abstract

**Influences of Training Process for Retreat Volunteer
to the Religiosity and Satisfaction with Life in
Catholic Youth Bible Community
—In Archdiocese of Kwang-ju and Diocese of Jeon-ju—**

Cho, Balkeuni

Archdiocese of Kwang-ju

Lyu, Jeonghee

Chon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raining Process for Retreat Volunteer in Catholic Youth Bible Community.

The questionnaires to measure attitude of religion,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collaborative types-religious coping, satisfaction with life were administrated to forty youths in archdiocese of Kwang-ju and diocese of Jeon-ju. T-test was conducted to test differences between pre- and post-process.

The comparison of pre- and post-process within participants showed that creedal assent, fidelity, religion life were increased but church attendance was decreased. The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collaborative types -religious coping, satisfaction with life were improved.

Based on these finding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training process for retreat volunteer in catholic youth bible community, attitude of religion,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collaborative types-religious coping, satisfaction with life